

PRESS RELEASE

EMO 하노버 2013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에 집중

글로벌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솔루션 집중 전시

2012 년 12 월 12 일, 서울 – 금속가공 분야 세계 최대 박람회인 EMO 하노버 2013 이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 in Production)”를 주제로 내년 9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된다. EMO 하노버는 21 세기 관련 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생산현장의 니즈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지능형 솔루션이 제조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플랫폼인 EMO 하노버에서 전시되는 것. 주최측인 독일공작기계협회(VDW)의 클라우스-페터 쿤뮌히 이사는 12 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비용 감축에 대한 압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진데다, 효율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생산 현장은 최대의 비용 효율성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쿤뮌히 이사는 “전세계 생산 전문가들이 이 같은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MO 하노버 2013 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EMO 에 참가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전시 포인트는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다.

글로벌 시장의 파트너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20 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공작기계 제조업체와 고객사는 오래 전부터 글로벌 경영을 해오고 있다. 세계 공작기계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용이다. 필요한 기계의 40% 이상이 아시아로부터 생산돼 70 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의 특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조 기술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위한 고객 지원과 에이전트도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능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전세계의 고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 포괄적 전문성, 최고 프로세스 전문성의 활용 여부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공급 기업측에 상당한 비용과 경쟁 압력이 수반된다.

쿤뮌히 이사는 “고객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력 있는 파트너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글로벌 네트워크, 고객지원, 포괄적인 서비스 능력과 함께 올바른 기술 역량을 각지의 생산현장에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EMO 하노버 2013에서는 전세계 2000 여 기업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글로벌 시장의 진정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세계 생산시설을 위한 혁신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수요 기업들은 생산현장의 위치에 관계 없이 효율성, 품질, 유연성, 이용가능성을 성공의 기반에 두어야 한다. 미미하더라도 비용 우위의 존재 여부가 실질적인 주문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는 지능형 생산기술을 이용해 달성된다.

공작기계의 컨셉,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 툴,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언제나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어떤 영역이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의 기능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에 달려 있다.

배치(batch) 생산량 변경,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 유형, 지속가능한 생산 니즈와 같은 오늘날의 고객 요건은 혁신을 추가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 개발과 구체화 과정에서부터 생산 계획과 주문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데이터 집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흐름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적 기업들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생산, 제어, 시험을 위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현대적인 생산 시스템 또한 기업의 전반적인 IT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는 지능형 공작기계들이 상위에 있는 관리나 제어 시스템과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산업 4.0’ 개념이다.

세계 최대의 금속가공 분야 혁신 포럼인 EMO 하노버 2013의 전시 기업들은 이러한 개념을 무리 없이, 실현하고 이들 분야에서 지능형 제조를 위한 글로벌 혁신을 제시하게 된다.

공작기계 수요기업을 위한 지능형 지원

그러나 제조 기술 제공업체에게는 첨단 기술을 갖고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이들 기업은 매우 다양한 고객 니즈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쿤뮌히 이사는

“전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니즈 중에는 품질 보증, 문서화, 기계 모니터링, 유지관리,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 등이 포함된다.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는 공작기계 사용기업이 일상의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용되는 툴에는 제어 시스템의 멀티미디어 요소, 웹기반 진단 시스템, 원격 유지 관리 서비스, 획기적인 핫라인 컨셉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훈련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을 위한 필요 기술을 뒷받침한다.

단독 또는 현지 벤더와 공동으로 각 시장에서 이들 지능형 지원 시스템을 공작기계 사용기업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그 자체가 판매자에게 중요하고 독특한 셀링 포인트가 된다. EMO 하노버 2013 은 이러한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리다.

※ 보도자료 문의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아이피알포럼(주) 전시 1 팀 유재은(Tel: 02-551-7063, E-mail: avery@ipr.co.kr)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www.emo-hannover.de/presseservice



http://twitter.com/EMO_HANNOVER



<http://facebook.com/EMOHannover>



<http://www.youtube.com/metaltradefair>



<http://linkedin.com/company/emo-hannover>



<http://www.cnc-arena.com/de/newsroom/emohannover>